춘천도시재생

uris.chuncheon.go.kr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6호

발행호 6호 **발행일** 2022년 01월 28일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산하, 이채은, 이예은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6)
협조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033-256-2045)

저작권사용표시
Pixabay로부터 입수된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의의 KoPub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6호
2022. 01.

춘천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2 January **VOL. 6**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6호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 T 033-245-5266 W uris.chuncheon.go.kr/webzine

uris.chuncheon.go.kr/webzine

Contents

4 특집 — 임인년, 복 내려온다!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신년운세

6 특집 — 2021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18 근화소양 — 새벽빛으로 시작하는 하루
근화소양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박계화 인터뷰

20 교동소양 — 그림책의 매력 속으로
〈상상톡톡 독서미술〉 전시회 관람기

24 조운소양 — 조운동네에서 뭘 해야 좋다고 소문이 날까?
상인들의 반짝이는 생각 축제

26 센터소식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신규직원 편지영·이예은 인터뷰

28 약사명동 — 약사리 케어카페 간호사를 만나다
길벗 대표이사 김지향 인터뷰

32 근화소양 —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근화소양! 강원도 최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발행호 통권 6호
발행일 2022년 01월 28일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산하, 이채은, 이예은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6)

협조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033-256-2045)

壬寅年

임인년, 복 내려온다!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신년운세



[총운]
외로운 범이 마침내 둥지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으니
그 위엄과 패기가 높은 산에서 포효하는
포식자의 형상과 같습니다.
사방의 운이 열려 하늘도 내 편이 되는 해이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긴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이 감당하던 어려운 일을
무리가 도와 해결하니
상호보완과 상호발전이
한 해의 가장 큰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센터-주민의 협력과 조화가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소근소근 문화마을]
자력으로 고비를 넘고 정상에 오르니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운수라 하겠습니다.
다만 목표 달성까지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으니 목표를 향해 멈추거나 휴식 속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풍요와 성장, 건강과 활력이 늘어나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며 성취와 기쁨이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약사리 문화마을

[약사리 문화마을]
화창한 봄의 기운이 약사리 문화마을에
내려앉는 형상의 괘를 얻었으니
서기 만당의 길괘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귀인이 나타나 마을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마을 공유공간은 주민들의
역량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공간으로써
반목하던 이들도 다시 협심하게 되는
화합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재물운이 발현되기 위해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로 목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심할 것은 밭을 주든 솥을 주든
환경의 이로움은 주어지되
결과물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되겠습니다.

봉의산 비탈마을

[봉의산 비탈마을]
지속 가능한 마을 활성화와
거점시설의 운영을 위해 울타리의 말이
문을 나서고 초원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따르지만,
앞으로의 수확을 얻기 위한 시도라 본다면
행운의 씨앗을 땀 흘려 심는 것과 같으니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복이 따르는 만큼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실력 배양이 되고 가치 증명의 이정표가 되니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소통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조운동네

[조운동네]
익숙하고 절친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롭게 인연을 맺는 주민과도
스스럼없이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처신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괜스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성실함을
견지한다면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센터의 능력을 한 층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헤쳐나가도록 해야 하는 점입니다.

50호마을

[50호마을]
햇살 머금은 한적한 물가에서 먹이를 노리는
어린 범이 마침내 상 정상을 목표로
달려나가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50호 마을의 지위와 자격이 상승하여
자연스레 위세가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는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펼쳐지고 인복을 누리게 되니
주변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다만 빠른 상승 기세로 자칫 후반부에 체력이
모자랄 수 있으니 주민분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정서적, 체력적 안정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추진한다면
빛나고 값진 결과를 거머쥘 수 있겠습니다.

2021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2021 도시재생 우수사례

기고 이경은
인터뷰 이지나, 김민경, 김보희, 김재영, 황석호, 김고은, 이채은, 이규순, 도윤정, 편지영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육림고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육림고개 문화행사「월간육림」







사업명 육림고개 문화행사「월간육림」
사업기간 2021.09. ~ 2022.02.
참여기관 위드사람 컴퍼니
사업내용 매주,매월 다양한 컨셉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
사업소개
육림고개 소비 촉진을 위해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가위,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매월 육림고개 상권을 활성화한 행사입니다.

좋아요 2,449,384

이지나 코디네이터
코로나 정책에 따라 행사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 시행된 10월 핼러윈 페스티벌은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참가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가 마무리되어 감사했어요. 가장 크게 기획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는 지난해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움이 가득했는데요, 부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올해에는 더 재밌는 콘셉트로 육림고개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많이 놀러 오실거죠?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시청광장문화활성화 사업
월간문화예술놀이「조운 플레잉」

사업명 월간문화예술놀이「조운플레잉」
사업기간 2021.3. ~ 2021.11.
참여기관 위드사람 컴퍼니, 디자인 통, 협동조합 판, 동네방네 협동조합 외 지역 문화예술기획 단체
사업내용 사업권역 연계 문화행사 및 홍보 마케팅



사업소개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시청광장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3월부터 월간 문화예술놀이「조운 플레잉(=재생, 놀이)」을 요선동, 춘천지하상가, 새명동 거리, 상가 일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권역 내 청년 상인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노포 상인분들의 주요 상품 콘텐츠와 공간을 연계한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담고 상권 활성화와 문턱 낮은 예술 향유를 목표로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운동 도시재생 사업 권역(요선동, 새명동, 지하상가)일대가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지역 시민 간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상권을 가깝게 경험하고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매자층 확산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업을 1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조운 플레잉은 사업 기간 5년 동안, 초기 단계인 2년간은 현장지원센터, 지역 문화기획 단체와 사업 권역 주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중장기 계획은 주체를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기조로 활동의 주요 동력을 바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생·지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2,504,938

김민경 코디네이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춘천의 중심상권이자 문화예술 주요 거점이기도 한 조운동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지하상가, 새명동)은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권 불경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19가 확장되어가던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언택트 프로그램의 이슈가 강화되었었고 문화행사 언택트 버전의 초기 버전이 태동할 때였습니다. 언택트 플랫폼을 활용한 시도를 하였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과 성과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 범주 안에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적 제안은 제가 이제껏 활동한 분야와는 차별된 접근성이 필요하였고 새롭게 알아가야 할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업권역의 특성과 거주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주요한 인적, 공간적 자원과 연계하지 않는 활동은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속성, #고유성, #일상예술, #상권 활성화를 주요 키워드로 월간 문화예술 놀이 조운 플레잉을 기획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시민들에게는 온·오프라인으로 사업권역 상가를 홍보하며 이벤트를 통해 상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정 상가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여 작은 수익이지만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경험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이 더욱 주체가 되어 지원금이 없어도 문화행사를 자립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조운 플레잉 11월 마지막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지속성 구현의 주체인 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공동체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 사업권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움직임들을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5년 동안은 주민, 지역 문화기획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하며 우리 권역에 맞고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공공을 위한 '상권 활성화'의 의미를 더욱 넓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사업권역의 경제적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권역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씨앗이고 이 씨앗이 잘 뿌려져야지 경제적 활성화도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조운 플레잉은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우두동 마을돌봄 프로그램

우두동 부처협업사업(농림부)

사업명 우두동 사회적농업 마을돌봄프로그램
사업기간 2021.05. ~ 2021.11.
용역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프로그램
공유텃밭 만들기, 실내가드닝 등
사업소개
농림부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과 우두동 50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농업 마을돌봄 프로그램입니다. 16주차 갸량 진행되었으며 공유텃밭에서 자란 배추로 김장을 하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2,455,263

김보희 코디네이터 우두동 50호마을은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이 끝난 지역이지만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S·W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지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유의 깊게 살펴본다면 사업비가 없어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을 해나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도시산책자

우두동 지역자원연계사업 (춘천문화재단)

사업명 춘천문화재단 시민공모사업 「도시산책자」
사업기간 2021.09. ~ 2021.12.
운영기관 춘천문화재단
프로그램
50호마을 주민들이 두 팀을 이뤄 마을을 산책하는 프로그램
사업소개
「도시산책자」는 춘천문화재단 시민공모사업의 하나로 도시를 산책하며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아요 2,455,263

김보희 코디네이터 사업을 진행해보면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참여한다면, 사업비가 없어도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치읓치읓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사업명 춘천도시재생 소식지 「치읓치읓」
사업기간 2020.10.01. ~ 계속
제작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쇄 강원도민일보
사업소개
「치읓치읓」은 춘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홍보하고 주민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활동·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발행하는 분기간 정기간행물입니다.



좋아요 2,455,264

이경은 코디네이터 21년의 한 해를 꽉 채우고 22년 신년호를 발행합니다. 모든 과정을 센터에서 직접 해내다보니 「치읓치읓」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겨우 6호를 발행하면서도 감회가 새로운가 봅니다. 「치읓치읓」은 사업을 찬찬히 기록하고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들을 계속 다듬어가며 만들어가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세요. 항상 멋진 원고 준비해주시는 편집위원분들과 인터뷰 요청, 자료 요청 시마다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담당자분들께, 그리고 지켜봐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드려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마을헬스케어「치유텃밭」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마을헬스케어「치유텃밭」
용역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프로그램
-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텃밭 조성 및 운영
- 텃밭 매개 치유프로그램 운영
- 치유텃밭에서 기른 재배물과 육림고개 상인을 연계하여 팜투테이블 운영
-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나눔 행사 운영
- 프로그램 결과물 판매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농부의 시장 운영

사업소개
케어카페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고 텃밭을 매개로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좋아요 2,419,383

김재영 코디네이터 치유텃밭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치유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활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나눔 행사코자 의견을 모으고 약사명동 일대 독거노인 30여명에게 나눠드린 반찬나눔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하신게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마을헬스케어「케어카페」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마을헬스케어「케어카페」
용역사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프로그램
- 간호진단 및 간호서비스 운영
- 질환별 교실·영양 식단 운영
- 일상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상호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소개
케어카페는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과 함께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간호진단(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우울, 골다공증)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 중심의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커뮤니티 돌봄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아요 2,419,383

김재영 코디네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케어카페의 재방문율이 98%에 달하는 등 만족도가 높고 입소문이 나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케어카페를 다시 찾아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사업구역 밖 어르신들도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춘천도시재생 홍보사인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사업명 춘천도시재생 사인디자인 개발
사업기간 2020.11.~ 계속
용역사 mver
프로그램
춘천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아우르는 도시재생 통합사인 구축

사업소개
「춘천도시재생」 통합 사인은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연결하는 통합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재생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사업 성과물과 도시재생 공유공간에 설치되는데, 설치장소의 다양한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좋아요 2,455,264

이경은 코디네이터 실물을 직접 보기 전까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크기가 큰 지주형은 더 걱정이 되었죠. 번개시장이 첫 대상지였는데 설치된 모습을 보고 걱정을 좀 덜었어요. 귀엽더라고요. 사인 설치는 주민분들께서 먼저 건의를 해주셔서 제작하게 되었는데, 실물을 직접 보니 좀 더 빨리 제작했다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상상언더그라운드 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상언더 Art-놀토





사업명 상상언더그라운드 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상언더Art-놀토」
사업기간 2021. 11. ~ 2021. 12. / 매주 토(5회차)
참여기관 통통창의력발전소
사업내용 예술교육(사진 촬영 교육), 체험(예술작품 만들기, 특수분장 체험, 인형극 체험)

사업소개
춘천지하도상가 일대에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춘천시민과 지하상가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작품 만들기, 사진 촬영, 특수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좋아요 2,504,937

황석호 코디네이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와 공간 활용 향상을 위해 조성된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를 활용한 첫 예술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힘들었지만 빈 점포였던 공간을 많은 분께서 찾아주셔서 교육·체험을 경험하셨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하상가 내 상점을 이용하시며 크지는 않아도 상권에 도움이 되어 좋았습니다.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하상가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춘천시민분들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교동 보물섬

교동소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온마을 돌봄 프로그램 「교동 보물섬」
사업기간 2021. 4. ~ 2021. 9.
용역사 춘천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프로그램
주민쉼터 「교동 보물섬」 운영 (헌책방 및 북카페, 뜨개방), 반찬나눔 사업,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원예치료 수업, 어린이 프로그램 〈교동엔 보물이 많아!〉
사업소개
교동·소양동 내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 돌봄 및 어린이·어르신을 위한 창작&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아요 2,455,271

김고은 코디네이터 어린이가 많지 않은 마을이기에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키트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가 주도하는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마을 아이들의 친목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고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장수 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을에 활력과 의미 있는 경험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메이커스 양성교육

교동소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교동·소양동 메이커스 양성교육 운영사업
사업기간 2021. 5. ~ 2021. 8.
용역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로그램
코딩(언플러그드 코딩, 스크래치를 활용한 햄스터 로봇),3D 프린팅(3D 펜, 3D 프린터), 드론 교육
사업소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지역 메이커 양성을 통한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 성인 대상 코딩 · 3D 프린팅 · 드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좋아요 2,455,273

이채은 코디네이터 주민분들의 건의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문턱을 낮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보내주셔서 담당자로서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집수리 기초교육

교동소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집수리 기초교육
사업기간 2021. 11. ~ 2021. 12.
용역사 강원드림건축기술교육 협동조합
프로그램
공구사용법, 도배, 도장, 방수, 목공교육, DIY가구 만들기
사업소개
「집수리 기초교육」은 주민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구의 사용법, 도배 및 바닥재 수리, 목공수업, 나만의 가구 만들기를 포함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결성하여 주민 사이의 봉사활동 또는 마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좋아요 2,455,274

이규순 코디네이터 주민들의 참여가 많을까 고민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하여 주셨고 사업 이후에도 추가 교육이 있는지 문의가 오기도 하여 뿌듯합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마을해설사양성과정

근화소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근화소양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사업기간 2021.11. ~ 2021.12.
용역사 동네방네 협동조합
프로그램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마을투어 코스개발, 마을투어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마을투어 오프닝 행사기획 및 운영
사업소개
마을해설사 양성은 도시재생과 주민이 마을에 대한 해설을 막힘없이 하기 위해서 진행한 교육입니다! 전국적으로 근화소양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고 느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2,455,265

도윤정·편지영 코디네이터 주민분들께서 강의에 집중하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마을투어 시연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어 보였어요. 강사님과 주민분들께서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 하나의 코스개발과 전체적인 시나리오, 테마 준비까지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날이 풀리면 많은 분들이 마을 투어를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주민맞춤형 창업(베이커리)교육

근화소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주민맞춤형 창업(베이커리)교육
사업기간 2020.10. ~ 2021.09.
용역사 220볼트
프로그램
제과제빵 메뉴 실습
사업소개
먹거리 창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베이커리 교육을 근화소양 주민분들도 배워보실 수 있는 교육이었어요. 케이크, 포카치아, 치아바타, 베지홀릭 등 제과제빵과 핸드드립 커피, 사장님의 창업 성공 노하우 등 고급기술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좋아요 2,455,275

도윤정 코디네이터 춘천에서 유명한 220v카페와 협업하여 퀄리티 높고 느끼는 것도 많은 교육이었어요.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이 연기가 되었음에도 많은 참여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연령층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 기쁜 사업이었습니다. 베이킹이 좋은 취미이자 더 나아가서 주민이 모여 마을쉼터 카페를 운영하고자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21 춘천도시재생 우수사례

근화소양 DIY목공교육

근화소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 근화소양 DIY목공교육
사업기간 2021. 11. ~ 2021. 12.
용역사 봄내가자란다
프로그램
마을목공소 꾸미기
(작업대, 탁자, 의자, 선반, 스툴 만들기)
사업소개
DIY목공교육은 마을주민분들이 기본적인 목공지식을 얻고, 함께 만든 마을목공소를 주택관리 및 집수리지원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업대부터 공구함 제작까지 직접 주민의 손을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2,455,268

도윤정·편지영 코디네이터 주민분들의 참여가 많은 수업이라 기대가 되었어요. 목공이 재단부터 자르고, 조립하는 과정까지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하셨지만, 목공소 안에 내가 만든 목공품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공교육이 힘들지만 성취감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목공소에서 목공 재료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百人步

새벽빛으로 시작하는 하루

박 계 화
근화소양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근화소양 마을백인보 사업으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센터 홈페이지와 근화소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학교 앞에 포장도 멋있게 됐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2층짜리 커피숍도 생겼고, 인생 도서관도 들어왔고요"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동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계화입니다. 현재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벽시장에 나가 장사도 하고 있고요.

소양동으로 오게 된 사연은요? 홍천에서 살다가 20대 초반에 남편한테 시집 온 거죠. 우리 신랑이 하도 쫓아다녀 가지고. 그렇게 소양동 들어와서 근화초등학교 앞에서 44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새벽시장은 어디로 다니세요? 서부시장이요. 저는 서부시장하고 인연이 깊어요. 시집오면서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고, 여기서 번 돈으로 근화초등학교 앞에 집도 지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시장조합장님께서 새벽시장을 도와 달라 하셔서 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다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서부시장에서 시작해서 다시 서부시장으로 되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저로선 감개무량해요. 20대 초반에 장사했던 곳에서 60대가 되어 다시 장사를 하니까. 요즘엔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커피도 끓이고, 칼국수도 끓이고 하면서. 제 성격이 항상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래서 할머니들께도 인기가 많죠.

새벽시장에서 파는 야채들은 상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판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사가 끝나면 저녁에 후레쉬를 들고 야채 뜯고 정리해서 그 다음 날 새벽에 팔아요. 직접 못 파는 사람들은 나한테 따로 부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품걸리에서 더덕을 몇 백 근을 갖다가 팔았어요. 다른 시장에서 킬로그램 당 만 오천 원하면 저는 만 원씩 해서 싸게 팔아요. 화천에서 직접 기른 오이 같은 것도 제가 팔아주고요. 그렇게 팔아주면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시장 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다른 시장에 비해 엄청 저렴하게 파시네요. 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문은 안 남겨요. 거의 봉사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저 고생한다고 옷도 갖다 주시고, 신발도 갖다 주시고, 스카프도 사다 주시고. 그래서 장사 겸, 봉사 겸,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서부시장은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엔 서부시장이 춘천에서 최고 일류시장이었죠. 서면 분들도 일부러 리어카 끌고 오셔서 한가득 장을 보고 가실 정도였어요. 당시엔 제사나 환갑연도 외부에서 안하고 집에서 손수 장을 봐서 했거든요. 제가 그런 물건을 주로 팔았어요. 그래서 더 시장을 살리고 싶어요.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당시의 70%정도만 살려 놓아도 제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소양로에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요? 제가 근화초등학교 앞에 살았잖아요. 그 앞에 기와집 골이 있는데, 그곳이 헐리는 게 조금 아쉬워요. 내가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어디를 다녀오든 항상 그곳으로 다녔거든요.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보던 풍경이 없어지는 게 조금은 아쉽고 서운하죠. 그리고 7층 석탑에도 많은 추억이 있고요.





역사공원 7층 석탑이요? 네. 그때는 그 근처가 전부 판자촌이었어요. 당시에 방을 못 구해서 다락방에서 아이를 낳고 불도 못 때면서 살았는데, 우리 딸내미 기저귀도 널 때가 없어서 7층 석탑에다가 막 널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문화재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좀 없었죠.

이곳에서만 44년을 사셨으니 동네에 대한 추억과 애착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부시장을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추억 때문에. 새벽시장도 네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면 여전히 캄캄해요. 그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할머니들이 새벽시장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들 말씀이 이곳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활기가 돋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용돈을 모아 오셔서 장도 많이들 보세요. 그리고 춘천 시장님께서도 항상 이쪽으로 걸어서 출근하시거든요. 그때마다 한번 씩 들여다보세요. 장사는 잘되는지, 고생스러운 일은 없는지 여쭤봐 주시고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라도 시장을 꼭 살리고 싶어요. 쉴 때 쉬더라도 시장은 반드시 살려놓고 쉬고 싶어요.

소양로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음지가 양지가 된다고, 다른 동네들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양로만 캄캄하고 우중충해요. 저는 소양로가 명동처럼 밝고 예쁜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단 공원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지저분한 집들도 지원을 좀 해주고, 낡은 지붕도 보상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하시는 것도 그런 바람 때문인가요? 사실 바빠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동네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가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 동네 학교 앞에 포장도 멋있게 됐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2층짜리 커피숍도 생겼고, 인생 도서관도 들어왔고요.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동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여기 캠프자리가 서울에서 30, 4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인데, 빨리 개발을 해서 역세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화시설, 체육시설도 마련하고. 우리 소양로에 없는 목욕탕도 운동시설과 함께 마련하고. 그렇게 서울에서 사람 들이 놀려와 목욕도 하고, 먹거리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면서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발전해야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책의 매력 속으로

주민공모사업 〈상상톡톡 독서미술〉 전시회 관람기

글/사진 이채은

책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어릴 때 한 번쯤 펼쳐본 적이 있는 그림책.
그림책은 주로 누가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문했던 한 서점에는 책꽂이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림책 독자는 0살에서 100살까지입니다.'

저에게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문구를 읽는 순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읽는 '그림책의 매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독서 미술 지도사 2급 과정으로 진행된 주민공모사업 전시회가
도시재생 마을공유공간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동 · 소양동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10명의 참여자들이 모여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만드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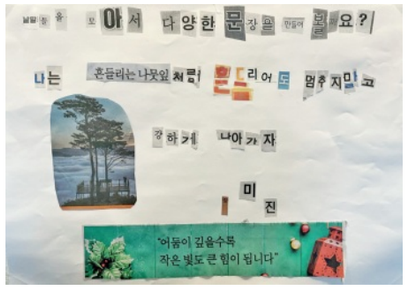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책들은
각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관람객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작품의 의미를 상상해 보기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시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관람하는 도중 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주민을 만나 뵈었고,
진행 과정 가운데 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분께서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의미 있었어요."라고 하시면서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알고 이해하는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릴 때만큼 상상력을 펼칠만한 일들이 없어지고
현실이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 모여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스토리텔링 하며 창작하는 과정들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가와 참여자, 관람객들이
물리적으로 서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지만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전시회였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의미 있었어요"





상상톡톡 독서미술
사업일시 2021.10. ~ 2021.12. (총 10회)
프로그램
독서 미술 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성인 대상 독서 미술 치유 프로그램
주민공동체 발굴 및 육성







조운동네에서 뭘 해야 좋다고 소문이 날까?

상인들의 반짝이는 생각 축제

글/사진 이예은

조운동네에서 뭘 해야 좋다고 소문이 날까?

사업일시 2021.11.8. ~ 2021.12.15
프로그램
주민참여 기획 워크숍으로 주민들이 직접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함께한 상인분들의 의지를 알 수 있었고
더 많은 진솔한 대화가 계속되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준 교육보다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강의 경우 우리와 맞는 사례가 더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속적인 페스타가
운영되면 좋겠어요!"

지난 12월 15일, 총 5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씽킹페스타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운플레잉 〈조운동네에서 뭘 해야 좋다고 소문이 날까? – 씽킹페스타〉는 주민 참여형 기획 워크숍으로 주민들이 직접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교류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실행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뭘 먹으면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가 평소 자주 쓰고 듣는 문장에서 영감을 받은 이 타이틀은 한산한 조운동 상권에 무엇을 하면 좋다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상가, 새명동, 요선동 각 권역별로 팀을 나누어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목요일 두 시간씩 회의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료식 당일, 권역별 2022년 사업 계획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공감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의 필요성을 통한 지하상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안('함께 떠나는 쉼표 여행')이, 새명동에서는 플리마켓·분필 낙서 광장 등 체류 시간이 긴 참여형 어린이 행사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입하는 시청광장 활성화 사업안('안녕, 마켓')이, 요선동에서는 뉴트로한 공간적 매력을 살려 공방 체험·공연·퍼레이드와 같은 요선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안('요선 블렌딩')이 공개되었습니다.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했던 마지막 발표, 2022년의 조운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시간을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긴 여정을 끝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조운동 상인분들의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상인분들의 노력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알아? 조운동네가 좋다고 소문났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호랑이처럼 힘차고 멋진 한 해 보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21년 11월부터 기초센터에서 근무 중인
편지영 코디네이터와 조운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이예은 코디네이터입니다.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아주 뉴페이스는 아니겠네요.
센터에 방문하셨거나 활동 중에 만나게 되어
이미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낯선 분들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립니다.

기고 이경은
인터뷰 편지영, 이예은

편지영 코디네이터 인터뷰

안녕하세요, 코디님!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편지영 코디네이터입니다. 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서무 및 회계 관리이고요. 그 외에 다른 코디네이터님 옆에서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일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워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도시재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모두 다 함께'인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코디님들 옆에서 일을 배우면서 현장 모니터링을 몇 번 가보았는데요. 많은 사업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업 하나가 시작되어서 완수되기까지 과정에 센터 코디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용역업체 등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 또는 도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곳이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럽 전역을 다 가보고 싶지만, 가장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는 이탈리아랑 스위스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와 피렌체에 가보고 싶은데요. 유럽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건축물이 많이 있고, 다른 유럽국가보다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또, 반도로 길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 아래서부터 로마-피렌체-베네치아-밀라노 순으로 돌아보고 싶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대자연을 보면서 트레킹을 해보고 싶어서 꼭 한번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가장 이상적인)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곳이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대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커먼그라운드가 도시재생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차고지로 쓰이다가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부지를 재생 건축한 곳으로 지금은 건대의 랜드마크가 된 곳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산업적으로 쓰이고 있던 컨테이너를 옮겨 조립한 건물로, 산업폐기물로 버려질 수 있었던 컨테이너를 활용해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가보았는데 컨테이너로 연결되어있는 건물 안에 편집숍, 플리마켓, 음식점 등 개성 있는 여러 마켓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나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근화소양 DIY 목공교육입니다. 처음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한 교육이기도하고, 첫날부터 많은 주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대부분의 수업을 참관했었는데요. 교육을 같이 듣다 보니 목공소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주민분들과도 좀 친숙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을목공소가 강사님과 마을주민분들의 노력으로 근사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목공소가 앞으로 있을 교육과 커뮤니티룸으로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은 코디네이터 인터뷰

안녕하세요, 코디님!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예은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조운동네 공식 SNS 채널들을 이용한 홍보 업무 및 센터 기록화 사업의 일환인 소식지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손.에.손.잡.고〉 벽을 넘어서~♪ 도시재생은 그 무엇보다 '같이'의 '가치'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요. 센터의 의욕만으론, 주민의 의지만으론 이룰 수 없던 일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꼭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 또는 도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곳이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유럽을 한 번쯤 여행해보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겨울의 아이슬란드요. 압도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랄까요. 자연만이 간직한 경이로움을 제 눈과 마음에 한가득 담고 싶습니다. 신비로운 오로라도 보고 싶고, 또 제가 물을 좋아해서 스노클링과 온천도 체험하고 싶고, 눈이 부실만큼 하얀 세상을 거닐어보고 싶어요.

춘천만의 도시재생으로 가는 건강한 여정이 되려면 꼭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우수 사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단점은 극복해내는 것이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Of the Chuncheon, For the Chuncheon, By the Chuncheon(춘천의, 춘천을 위한, 춘천에 의한)" 도시재생인 거죠.

앞으로의 다짐,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또한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우리 동네 춘천이 더욱더 즐겁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열심히 할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ㅎㅎ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운동 센터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이 올해 4월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재미있고 알찬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Kim Jihyang

약사리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약사리 케어카페 간호사를 만나다

글/사진 이산하
인터뷰 길벗 대표이사 김지향

약사리 케어카페
사업기간 2021.11. ~ 2022.02.
프로그램
약사리 마을 주민 대상 간단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상담 및 조언
미술 요가 다도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마을돌봄 간호사협동조합 「길벗」 대표이사 김지향 인터뷰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약사명동에서 케어카페를 운영하는 길벗 마을돌봄간호사 협동조합 이사장 김지향입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케어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0년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리빙랩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거두리와 약사명동 지역에 케어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4개월가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민하다 시범사업으로 두 곳을 운영하였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약사명동에서 2차로 운영하였고 계속 주민분들의 호응이 뜨겁다 보니 이번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세 번째로 케어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어카페는 정확히 어떤 카페인거죠?
우선 매일 혈압 및 혈당체크는 물론이고 인바디 신체 계측같은 간단한 건강측정과 1:1 개별 상담을 통한 일상의 건강관리를 "케어카페"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어카페'안에서의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해 미술, 요가, 다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들은 약사명동에서 케어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역 주민분 중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주민 강사로 참여하셔서 다른 주민분들에게 재능 나눔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소통하실 수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와! 마을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참여하신다니 여러모로 굉장히 뜻깊은데요? 그동안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느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여름에 진행했던 원예 수업에 참여하셨던 주민 중 한 분으로, '한일플라워 식물원' 공간이 소통의 공간이 되면서 원예 수업 당시 본인의 재능이 마을주민분들과 함께 공유되어 이번 '케어카페' 프로그램에 주민 강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반 의료현장과 케어카페의 차이점이 있나요?
병원의 일반적인 의료현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처치를 받는 등의 치료적 조건의 상황이라면, '케어카페'는 거주지 근처에 있으면서 매일 방문할 수 있고, 지역의 본인이 살고 계신 공동체 안에서 간호사가 운영하는 '케어카페'라는 곳을 통해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케어카페' 에서는 기본 활력징후인 혈압•혈당 측정을 하면서 의료적 접근을 하고, 주민들의 개개인의 건강상담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상담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자가간호의 목표를 갖고 만성질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어카페'에서의 이런 활동들은 주민들의 질환(예: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나 식습관 같은 생활 방식들도 알 수 있게 되어, 동기부여들 통한 생활 개선, 개별 맞춤형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약사명동 주민분들의 보건 선생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전에도 지금도 없었던 활동은 아닙니다. 여러 공공기관 및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 안에 밀접하게 나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의료인으로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케어카페'라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건강관리를 챙겨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통해 의료인들이 직접 주민들 가까운 곳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스스로 하기엔 어려웠던 의료적인 정보들을 교육해 드리고, 소통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자•조력자로서 지지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상으로 케어카페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작년 케어카페 첫 운영 때 나오셨던 분 중 한 분의 혈압이 190에 100으로(혈압의 정상수치는 수축기 120이하, 이완기 80이하) 혈압이 매우 높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건강측정 후 병원에 내원하시도록 권유해 드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무려 5년 동안 병원 가실 일이 없었을뿐더러 본인의 혈압이 높은 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때 건강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병이 생기셨을 텐데 참 다행이었어요. 또 다른 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걸음이 불편해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분으로 케어카페 오셔서 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며 처음엔 어려웠던 요가 동작(무릎 수술로 인해)이었는데, 꾸준한 참여로 어느 날 지팡이 없이 요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잘 다니시는 분입니다. 정말 '케어카페'에 오셔서 건강해지고 활기차지신 분들이 많아요.

와~, 케어카페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만족도는 지난여름에 진행했던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주민분들도 케어카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계속 참여하려는 의지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케어카페'는 누구나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케어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힘든일이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 케어카페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또 '케어카페'란 개념이 아직 주변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전례가 없어서 케어카페를 통한 효과를 정량적 데이터로 측정하고 나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개별접근의 삶을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보니 정성적 접근에 가까워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 또한 케어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어카페를 운영하면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바라는점이 있다면?
지금도 워낙 잘 도와주시고 계신데요.(웃음) 개인적으로 하나 바람이 있다면 최근에 새로 들어온 코디네이터분과 인사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케어카페 운영 종료 후 간호사 분들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춘천사회혁신센터와 함께 '케어카페' 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하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60세 이상의 간호사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케어카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자칫 실험으로 끝날 수 있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근화소양! 강원도 최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글/사진 도윤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주민이 직접 주민이용시설을 관리하거나 사업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한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1년 3월부터 논의, 6월부터 설립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해
그해 12월 강원도 최초로 설립 인가받았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곳곳에서 통장, 자치위원, 청년위원장 등 지역과 세대의 대표로서 꾸준히 활동한 분들이다.
시민 마켓, 카페, 설비, 지역학 연구소, 장애인 연합회, 시장 상인 등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
적재적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근화소양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12회에 걸쳐
주민 맞춤형 창업 교육(바리스타, 제과, 차)을
진행했다. 창업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이 현재 공동
이용시설인 마을 쉼터 〈소근소근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으며 운영하고 있다. 소양 5통장과
소양동 주민자치 위원을 맡을 정도로 마을에 열정이
가득한 박계화님은 바로 옆 보성슈퍼를 운영하며
매일 주민 쉼터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관리하고 있다.



마을 문화공간인 소양강변 문화공간은
수공예품을 생산해 보고,
마을 청년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면서
사람 냄새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소양강변 문화공간에서
빈백, 디자인 비누, 천연 식물 가습기, 자개 모빌 등
수공예 교육을 했으며 동네에 사는 청년이 뜻을 모아
그곳에서 소양강변 청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중 하나인 마을목공소를 통해
주택관리 및 집수리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DIY 목공 교실 수업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목공 재료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과 근화·소양동에 대한 해설을
막힘없이 하기 위해서
마을해설사 교육을 사전에 받기도 했다.
마을의 거점시설에 대해 공부하고
마을이 가진 역사와 문화유산,
거점시설에 대한 배움과 지역의 특색을 알려보자는
홍보의 취지로 조합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변좌용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지역(근화동,소양동)은 수려한 산수와 춘천의 문화유산이 살아있고, 근대사의 6,25 전쟁(춘천대첩)유적(소양 1교)과 (구)캠프페이지가 있으며, 중도 레고랜드가 올 5월에 개장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춘천 희망의 땅입니다.
또한, 우리 조합원(사업이사)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에는 이 지역 삶의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로 누구보다 지역 사랑에 애착이 많은 분들이며, 조합원 한분 한분이 모두 타업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참여도와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조합 사업에 참여하며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부터 이론교육, 현장 교육 그리고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 담당자 회의를 통한 의견통합 등 많은 시간과 목소리들이 다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근화소양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당부 한마디 해주세요.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 사업은 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파생된 앵커 시설의 위탁운영으로 지역 공동체의 자력갱생에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춘천시와 춘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과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점점 더 커졌으면 합니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종 거점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전개하며,
마을을 스스로 가꾸고, 마을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근화소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새로운 발돋움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 6호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 카페 〈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 인스타그램 〈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 페이스북 〈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 페이스북〈교동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 인스타그램 〈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 페이스북〈조운동네〉
  https://www.facebook.com/joundongne

춘천도시재생 | 약사리 문화마을 | 봉의산 비탈마을 | 조운동네 | 50호 마을 | 소근소근문화마을